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커넥션지도

문화·관광 -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올리브오일 관광 프로젝트

산업·경제 - 공인 멘토 파트너 임명·연계로 스타트업 지원

행재정·교육 - 실명제, 보험 가입 등 드론 운행 지방조례 최초 마련

환경·안전 - 탈탄소 사회를 향한 새로운 국민운동 '데코활'

도시교통 - 보행자 우선 정책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	정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웰빙커넥션지도

호주 멜버른시 / 사회·복지

호주 멜버른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 ‘웰빙커넥션지도’를 대화형 지도의 형태로 온라인 제공. 거주지역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고 참여를 독려

서비스 개요

- 시민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성과 밀접
 - 지역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정신건강과 웰빙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 개개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 이를 위해 ‘웰빙커넥션지도(Wellbeing and Connection Map)’라는 대화형 지도를 디자인
 - 시민이 지역사회로부터 정신건강과 웰빙에 관한 양질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연결성을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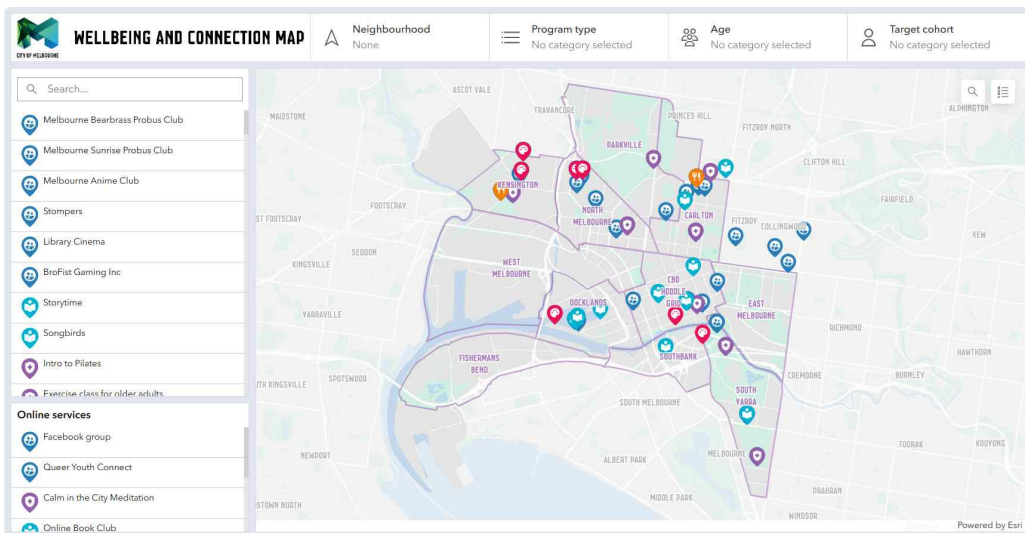
웰빙커넥션지도 서비스 주요 내용

- 멜버른시와 주변 지역의 기존 커뮤니티 활동과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지역별, 분야별, 나이별, 특정 집단별로 구분하여 검색 가능
 - 분야: 건강·웰빙 및 피트니스, 예술과 문화, 교육과 평생학습, 사회 모임, 원예, 음식 등
 - 연령: 전 연령, 어린이와 가족, 청소년, 노년 등
 - 특정 집단: 장애인, 부모·자녀, 다문화·다언어 모임, 성소수자 등
 - 온라인 프로그램 정보도 제공하여 물리적 대면접촉 없이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 제공
 - 페이스북 그룹이나 줌 모임, 온라인 채팅을 활용한 부모 상담 등
- 각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세부 안내도 함께 제공
 - 참여 대상, 요일과 시간, 이용 방법, 비용과 조건, 연락처 등도 해당 지도에서 통합 제공하여 이용 편리성 높임

- 더 전문적이고 긴급한 정신건강 지원과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요 정신건강 서비스, 헬프라인(help line, 익명의 제보시스템), 위기 지원 전화번호 등의 목록도 제공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자살,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숙자 등에 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목록 제공

기대 효과와 시사점

- 지도 활용으로 개인이 지역사회 내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시민들이 지역사회 안팎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기회 확대
 -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정신건강을 개선하고 소속감 및 연결성을 증진
 - 나이, 배경, 능력, 성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환영과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을 찾는 데 도움
- 시민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제공에 관한 사례
 - 서비스 중심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욕구 중심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개발
 - 시민의 정신건강과 웰빙이 지역사회 연결성과 관련이 높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라는 도시문제를 해소



[그림] 멜버른시 웰빙커넥션지도 서비스 화면 (출처: City of Melbourne)

<https://www.melbourne.vic.gov.au/community/health-support-services/health-services/Pages/wellbeing-connection-map.aspx>

<https://participate.melbourne.vic.gov.au/cbd-neighbourhood-portal/wellbeing-and-connection-map>

<https://cityofmelbourne.maps.arcgis.com/apps/dashboards/47ef54d9f14b466f9a409cbccab69088>

황 현 정 통신원, hj.hannah.hwang85@gmail.com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올리브오일 관광 프로젝트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문화·관광

올리브오일의 최대 생산지인 토스카나주는 올리브 도시협회와 제휴하여 농업과 관광을 결합한 올리브오일 관광 프로젝트를 시작.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하며 동시에 관광객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

배경과 목적

- 토스카나 지방에서 올리브오일의 의미
 - 토스카나 지방의 중요한 농산물 중 하나
 - 토스카나 지방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은 양과 높은 품질의 올리브오일을 생산하고 있음
 - 농업의 관점을 넘어 문화와 관광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됨
 - 올리브오일은 토스카나 지방의 미식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서 토스카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상징함
 - 올리브오일이 생산되는 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신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 관광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 대두
 - 틀에 짜인 일반적인 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급감
 - 특정한 지방의 본래 문화와 미식,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여행객들의 욕구가 높아짐
-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 관광객들의 소비를 장려하는 도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전통을 지키며 현지인들의 삶을 관광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지향함
 - 관광에서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두 분야가 결합하여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기대

주요 내용

- 올리브 도시(Città dell'Olio)협회
 - 1994년 시에나에서 설립된 올리브 도시협회는 이탈리아 전역의 올리브오일 문화를 보존하고 높은 품질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협회는 올리브가 생산되는 특정한 마을을 ‘올리브 도시’로 선정
 - 토스카나 지방에는 58개의 올리브 도시가 있으며, 이탈리아 전역에는 462개의 올리브 도시가 선정되었음
 - 선정된 도시는 국가 차원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도시 홍보와 미식 행사를 진행
- 토스카나주와 올리브 도시협회가 제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협력
 - 올리브 나무 사이 걷기(Camminata tra gli olive)
 - 두 기관이 공동으로 런칭하는 이니셔티브로 올리브 수확철인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약 2~7km의 올리브 숲을 산책하는 프로그램. 각각의 올리브 도시에서 산책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으며, 산책길에는 관광객들이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올리브오일 생산 과정을 볼 수 있는 농장, 생산한 올리브오일을 토스카나 전통 음식과 함께 맛볼 수 있는 행사를 포함
 - 관광객이 방문하는 땅과 자연에 대한 유대감을 선사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의도이며, 올리브오일을 통해 사람, 자연, 미식,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 지방의 총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올리브 숲에서 미식 즐기기(Merenda nell'oliveta)
 - 관광객들이 올리브 숲에서 올리브오일을 포함한 토스카나의 전통 음식을 함께 즐기는 행사
 - 시음회, 생산자와의 만남 및 농장 방문, 올리브에 관한 문학 작품을 낭독하고 음악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는 과정을 배우며 사람과 자연의 합작품임을 경험하고 땅과 노동력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효과를 기대
 - 올리브오일 생산 문화가 토스카나 관광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
 - 올리브오일 농장을 미적으로 세련되게 디자인하는 등 올리브 도시가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도록 노력
 - 올리브오일 관광을 통해 느린 여행(Slow Tourism) 트렌드 실현
 - 미식 관광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가치 창출 기대
 - 이탈리아 전역의 올리브 도시들이 자연과 미식을 결합한 행사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

<https://www.toscana-notizie.it/-/accordo-toscana-promozione-e-citt%C3%A0-dell-olio-promuovere-il-turismo-dell-oro-verde>

<https://www.intoscana.it/it/articolo/turismo-dellolio-un-accordo-per-promuovere-offerte-e-percorsi-dedicati-alloro-verde/>

<https://www.gamberorosso.it/notizie/olio-e-turismo-progetto-pilota-al-via-in-toscana/>

<https://www.cittadellolio.it/associazione/chi-siamo/i-nostri-progetti/>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공인 멘토 파트너 임명·연계로 스타트업 지원

싱가포르 / 산업·경제

싱가포르 정부(EnterpriseSG)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인 멘토 파트너(Accredited Mentor Partners)로 우수 기업을 임명하여, 스타트업 창업자는 멘토링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공인 멘토(우수 기업)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을 실행 중

배경

-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덕분에 투자자들이 창업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꼽힘
- 싱가포르 정부는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공인 멘토 파트너(이하 AMP)를 임명하고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하여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투자자, 변호사, 회계사, 정부 기관 등의 리소스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제공

AMP 제도의 주요 내용

- AMP 제도는 멘토링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및 젊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예비 지원자에게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창업자 간 협력을 장려
 -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멘토링과 재정적 지원 제공
 - 스타트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스타트업을 위한 혜택
 - 전문가 지도(멘토링): 공인 인증 멘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
 - 최소 12개월 동안 멘토링과 전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법률 지원 및 전략, 재무예측 및 계획, 마케팅 전략, 제품시장 적합성 평가, 기술 멘토십, 프로토타이핑 시설 제공, 코워킹·인큐베이션 공간 등 파트너 멘토 기업마다 특화된 지원 제공
 - 스타트업 기업가는 자신의 비즈니스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멘토를 공인 멘토 파트너

리스트에서 선택 가능

- 네트워킹 기회: 업계 전문가, 잠재적 투자자, 동료 기업가와의 교류 기회 제공
- 재정 지원 기회: 창업에 중요한 자금이 되는 스타트업 SG 파운더 그랜트(Startup SG Founder Grant) 신청 가능 자격 부여
- AMP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스타트업 적격 요건
 - 법인 요건
 -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6개월 이내에 등록된 유한 회사
 - 회사는 동일 아이디어에 대해 이전에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최소 1명의 정규직 직원 보유
 - 사업 계획, 재무 계획, 팀 약력을 포함한 문서 제출 필요
 - 창립자 요건
 - 최소 2인의 싱가포르인 또는 영주권자, 등록된 민간 기업 법인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는 모든 최초 창업자, 스타트업에 대한 전임 기간에 외부 고용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
 - 자산: 스타트업 지분의 30% 이상을 창업자가 보유
- 공인 멘토 파트너 임명 기준
 - 인큐베이션 및 관리 팀의 강점, 프로그램 품질 및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
 -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의 실적, 멘토들의 수준, 시장에 관한 접근성, 자금 접근성을 기준으로 임명
 - 현재 총 22개의 공인 멘토 파트너가 존재

시사점

- 싱가포르는 자국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성공적인 기업들과의 상생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리소스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하면서 최소 12개월 동안 멘토링과 지도를 기대할 수 있고, 공인 멘토 파트너는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공헌, 전문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유망 스타트업에 선제적으로 접근하여 투자 기회를 모색할 기회가 됨
- 신생 기업과 기존 우수 기업 간 파트너십 및 상생 구조를 마련한 사례로, 한국에 적용을 모색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됨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4894/startup-sg-founder/accredited-mentor-partners>

<https://www.gobusiness.gov.sg/gov-assist/grants/>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4894/startup-sg-founder>

<https://singapore.acclime.com/guides/startup-grants-funding/>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4894/startup-sg-founder/accredited-mentor-partners>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

실명제, 보험 가입 등 드론 운행 지방조례 최초 마련

중국 충칭시 / 행재정·교육

2023년 12월 충칭시는 중국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 공공안전관리판법」이라는 지방조례를 공표하여 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 공공안전관리판법은 드론의 종류를 5가지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규제하는 핵심 내용으로는 의무적인 실명제 등록과 책임보험의 가입, 자격증의 취득 등을 명시.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는 마이크로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

충칭시가 드론 관리판법을 제정한 배경

- 2023년 11월 16일 충칭시는 지방조례격인 「충칭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 공공안전관리판법(重慶市民用無人駕駛航空器公共安全管理辦法, 이하 공공안전관리판법)」을 통과시켜 12월 1일에 공표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개정된 「중국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과 새로 제정된 「무인운행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無人駕駛航空器飛行管理暫行條例)」의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이 제정한 지방조례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문이 12월 5일에 충칭시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공개됨
 - 중국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민용 무인운행항공기(이하 '드론')의 공공안전관리판법을 공표한 것은 충칭시가 최초
 - 최근 들어 드론이 군용, 산업용과 농업용부터 촬영과 취미생활을 위한 일상 영역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

충칭시가 제정한 드론 관리판법의 주요 내용

- 공공안전관리판법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의 종류와 구분을 명확히 함
 - 드론의 종류를 마이크로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등 5가지로 구분. 책임보험의 가입 내용과 사고 시 형사 및 민사 처리에 대한 대처 범위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
 - 마이크로형: 기체 중량이 250g 초과에 3.9kg 이하로, 최대 이륙 중량은 6.9kg 이하임. 최대 비행 고도는 50m까지이며,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40km를 초과함. 기본적인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경형: 기체 중량은 4kg 초과에 14.9kg 이하로, 최대 이륙 중량은 7kg 초과에 24.9kg 이하임. 최대 비행 고도는 120m까지이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초과함. 고도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소형: 기체 중량은 15kg을 초과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25kg 초과에 49.9kg 이하임. 최대 비행 고도는 120m까지이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초과함. 고도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중형: 기체 중량은 15kg을 초과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50kg 초과에 99.9kg 이하임. 비행 고도는 120m 이상을 날 수 있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 초과함. 정상급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 대형: 기체 중량은 15kg을 초과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100kg 초과에 150kg 이하임. 비행 고도는 120m 이상을 날 수 있고,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초과함. 정상급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춘 이가 운행해야 함



[그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론 중 하나인 농약 살포 드론 (출처: 총칭상보)

- 공공안전관리판법이 규제하는 핵심 내용은 의무적인 실명제 등록, 책임보험의 가입, 자격증의 취득 등임
 - 비행 적합지역 내에 거주하는 드론 소유자는 드론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공안당국의 관련 사이트나 살고 있는 행정 소재지의 파출소에 본인의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함

- 마이크로형을 제외한 경형 이상의 드론 소유자는 드론의 고유 식별정보까지 제출하여야 함
- 비행 관제지역 내에 거주하는 드론 소유자는 실명 등록과 식별정보 제출뿐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 전문 조종사 면허 취득, 비행 활동 신청, 이륙 전후 확인 등의 6단계를 완료하여야 함
- 모든 드론 소유자는 보험회사가 내놓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은 드론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름
 - 이에 따라 드론 소유자가 드론을 날렸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및 민사상의 대처 내용과 범위가 다름
 - 경형 이상의 드론 소유자는 고도의 드론 조종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이에 걸맞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90% 이상은 마이크로형 드론임
 - 기체 중량은 4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은 7kg 이하,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지 않음
 - 따라서 공공안전관리판법이 시행되면 대부분 드론 소유자는 실명제로 등록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됨

https://www.cqcb.com/yukuaibao/2023-12-08/5444160_pc.html

<https://new.qq.com/rain/a/20231208A09N1C00>

https://www.cqcb.com/yukuaibao/2023-12-07/5442641_pc.html

https://www.cq.gov.cn/zwgk/zfxgkml/szfwj/zfgz/zfgz/202312/t20231205_12655876.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탈탄소 사회를 향한 새로운 국민운동 ‘데코활’

일본 / 환경·안전

일본 환경청은 지난 2022년 10월 25일 ‘새로운 국민운동·민관연계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함과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소비자의 행동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민운동 ‘데코활’을 추진

탈탄소 사회를 향한 새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드는 국민운동 데코활¹⁾

- 2030년까지 가정 부문에서 66%, 운송 부문에서 35%, 에너지전환 부문에서 47%, 산업 부문에서 38%, 그 외 업무 부문에서 51%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축이 요구됨
- 따라서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려면 기존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바뀌 나가야 함
- 이에 일본 환경청은 2022년 10월 25일 새로운 국민운동·민관연계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여 탈탄소 사회를 향한 새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드는 국민운동 데코활을 추진
 - 데코활을 실천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며 동시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을 촉진
- 국가, 지자체,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을 지원
 - 데코활을 통해 변화될 10년 후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온·오프라인 및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
-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와 G20 장관회의 등에서 데코활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패키지로 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했으며, 지속적인 성과로 국제적 협조를 독려하고자 함

1)) 데코활(デコ活): 탈탄소를 의미하는 단어(decarbonization), 탄소를 의미하는 화학기호(CO₂), 생활 및 활동 등을 의미하는 한자(活, 살 활)를 조합한 네이밍으로 ‘탈탄소 사회를 향한 새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만드는 국민운동’의 애칭 공모(약 8,200건 접수) 통해 선정됨(2023. 7. 13.)

데코활이 말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 대책

- 가정 부문
 - 넷 제로 에너지 하우스(ZEH)의 구입 장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가정 내 에코진산 실시 등
- 운송 부문
 - 차세대 자동차 구입: 연료 전지 자동차(FCV), 전기 자동차(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하이브리드 자동차(HV)
 - 카 셰어링(car sharing) 적극 이용
 - 재택근무를 통한 자동차 이용 시간 감축 등
- 비에너지원 부문
 - 쓰레기 감축
 - 탈탄소형 제품과 서비스 이용
- 그 외 부문
 - 절수
 - 쿨 비즈와 웜 비즈(cool biz & warm biz): 에너지 절약하고 온실가스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여름철·겨울철 복장 문화
 - 식품 낭비 절감 등

데코활 행동 수칙: 데코활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전환을 위해 행동 수칙을 제안

- 행동 수칙 제1탄으로 '패션, 주거, 디지털 워크'를 제안
- 패션
 -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전 세대가 일하기 좋은 복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오피스 복장의 개혁'을 추진
 - 의류 재활용이나 업사이클 등 하나의 의복을 오랫동안 활용하도록 지속 가능한(sustainable) 패션과 결합한 새로운 여름 복장 창출 지원
- 주거
 -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주택 단열 리모델링 촉진 캠페인 전개
 - 주택의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2,800억 엔(한화 2조 8천억 원)의 예산 편성

- 디지털 워크
 -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시행
 - 국립공원의 디지털화(위케이션²⁾, 인바운드 대응³⁾)를 기업·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적 유치 촉구
- 행동 수칙 제2탄으로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절전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

데코활의 활동 현황

- 2022년 10월 데코활 발족 이후 현재까지(2023년 7월 27일 기점) 총 243건의 대책안, 제품, 서비스 등이 등록됨
- 또한 현재까지 총 7차의 민관연계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홍보 중



[그림 1] 데코활이 추구하는 10년 후의 라이프스타일 (출처: 일본 환경청 홈페이지)

2) 위케이션: 영단어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 재택근무를 활용하여 휴가지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여가와 일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말함
 3) 인바운드 대응: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환경 정비를 의미

데코활의 의의와 평가

-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90% 이상이 탈탄소에 관해 인지하고 있으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국민은 33.1%에 그쳤으며,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약 60%에 달함
- 일본 환경청은 국민운동 데코활을 통해 탈탄소 사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인지시키고 국민 행동을 독려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데코활의 의의가 있음
- 지자체 내에서 데코활 홍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https://ondankataisaku.env.go.jp/cn_lifestyle/

<https://www.asahi.com/sdgs/article/14963961>

https://ondankataisaku.env.go.jp/cn_lifestyle/common/file/20230522_cn_lifestyle_overview.pdf

https://ondankataisaku.env.go.jp/cn_lifestyle/common/file/20221208_cn_lifestyle.pdf

<https://www.env.go.jp/content/000150634.pdf>

<https://www.jimin.jp/news/information/206376.html>

서 유 환 통신원, yuhwan_seo@naver.com

보행자 우선 정책

프랑스 파리시 / 도시교통

파리시는 자가용 이용자 수는 줄고 도보 이동을 선호하는 시민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 이동수단(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이용자도 급격히 늘고 있음. 파리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도보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또한 '길 이용의 규칙(Le code de la rue)'을 발표하여 길은 공공의 공간으로서 여러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며 공유해야 하는 곳임을 시민들에게 재인식시키고 행동양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고 있음

사업 개요

- 파리 시내 이동 시 도보 이동의 비율이 65%에 이르며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도보 이동자 수는 12%가 증가
- 파리 시내 개인 자가용 사용자는 2002년 이후 49.5% 감소
- 총보행자 수에는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노약자의 비율이 높음
- 파리시는 보행자 우선 정책(2023-2030 Paris, priorité piéton)을 발표하고 3억 유로를 투자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계획을 제시
- 2023년 6월 파리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공장소를 함께 이용하기 위해 규칙(Le code de la rue) 제시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100헥타르 마련할 예정
 -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공공시설 주변에 100개 도로를 보행자 전용길로 정비(2023년 기준 56개 도로 정비 완료)
 - 마을 미화사업(Embellir votre quartier)으로 17개 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만들 예정
 - 올림픽경기장 주변 보행자 전용길 마련
 - 파리 대로변 12km를 점진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길로 전환
 - 차량 이동 감소 계획에 따라 각 구와 협의하여 각 구내에 보행자 공간 확보 및 확대

- 숨 쉬는 파리(Paris Respire) 정책 확대
 - 일요일과 휴일에 자동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파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인터넷에서 전용지도(La carte Paris Respire)를 검색하여 확인 가능
 - 확대하여 실시하려고 여름 내내 혹은 1년 내내 ‘차 없는 길’ 지정하여 실험 중
- 도보 이동이 좀 더 쉬워지도록 개선 계획
 - 길 이름 표지판 새로 설치 또는 개선하도록 함
 - 시민들이 직접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설(<http://dansmarue.paris.fr>)
 - 파리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파리와 인근 도시 사이 보행길 설치를 체계화함
 - 도보 이동이 대중교통 수단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행길을 개선하도록 함(예를 들어, 정류장 및 자전거 주차장 간 보행길 개선 등)
 - 장애인이 이동하기 수월하도록 버스 정류장을 개선하고, 전동 휠체어 사용자가 자전거 전용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제안
- 보행자 이용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과 편의를 위한 조치
 - 시내에서의 차량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제한구역 설치
 - 과속 및 보행우선구역 단속경찰 배치
 - 과속 및 소음 단속 이중카메라 설치
 - 보행우선구역(Zone de rencontre) 지정 및 확대
 - 도보 이용자가 많고 상업, 문화, 관광 지역이거나 길이 매우 좁아 보행이 어려운 지역에 지정. 최대 차량 속도는 20km/h로 제한
 -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 5m 내 주차 금지
 - 보행자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중앙분리대를 길게 설치
 - 보행자 안전을 위해 100m마다 횡단보도 설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리모컨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예정
 - 중대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
 - 이미 유럽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대 사고 제로화를 위한 ‘비전 제로’ 캠페인에 동참
 - 대형차량에 사각지대 경보기 부착하도록 조치(최근 출시 차량에 경보기 부착 의무화)
 - 파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차량(청소차 등)에 선제적으로 경보기 부착함
 - 속도 제한, 신호 개선, 보행자 보호 등의 방식으로 교통약자 위험 감소 노력

- 중앙정부에 신형 교통 감지기 설치를 요청

○ 보행자의 기후변화 적응 조치

- 센강 주변의 보행길을 개선하여 그늘을 조성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설치
- 폭염에 보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의 개방 시간을 연장
- 소음 감소를 위해 시내에서 3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경적 및 사이렌 남용을 금지함
- 소음 단속기 설치를 시험 중이며 이륜구동차의 소음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보행길에 그늘을 조성하고 음용대와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도보 이동이 쾌적할 수 있도록 조치

○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길 이용의 규칙(Le code de la rue)’ 발표

- 자전거, 킥보드 등 다양한 개인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편,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장소(길) 이용 규칙을 제시
- 보행자 절대 보호(보행길에 자전거, 킥보드, 오토바이 운전 금지)
- 버스 전용차선과 자전거 전용차선 침범 금지
- 제한속도 준수 및 신호등 준수
- 꽉 막힌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에 기다리기
- 불법 주정차 및 음주운전 금지
- 운전자가 차 문을 열 때 오른손으로 문 열기(자연스럽게 몸은 왼쪽으로 돌리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자전거·오토바이와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음)
- 교통약자(노인, 어린이)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되 건너기 전에 길 양측을 모두 확인하기

시사점

- 파리의 안 이달고 시장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센강 주변 길을 공원화, 도보길로 만드는 정책을 펴 온 바 있으나 한동안 시민들의 반대도 상당했음. 최근에는 직접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최근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시민 투표를 통해 금지하였고 SUV 방문 차량을 줄이고자 SUV 방문 차량의 주차비를 크게 올리는 안을 내년 초 시민 투표로 정할 예정)
- 보행길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파리시만이 아닌 유럽의 주요 도시 정책으로 채택되는 추세
- 대체 이동수단 이용의 증가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의 문제는 실제로 현재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기도 하므로 ‘길 이용의 규칙’과 같이 적절한 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음

<https://capgeo.maps.arcgis.com/apps/webappviewer/index.html?id=86256d58cf7040a3bf30e79e30e8f2c9>

<https://dansmarue.paris.fr/dansmarue/jsp/site/Portal.jsp?page=fodansmarue>

<https://www.paris.fr/dossiers/l-application-dansmarue-65>

<https://www.paris.fr/pages/decouvrez-la-carte-paris-pieton-22310>

<https://www.paris.fr/pages/un-code-de-la-rue-pour-redonner-la-priorite-aux-pietons-24186>

<https://www.paris.fr/pages/un-plan-parisien-pour-donner-la-priorite-aux-pietons-25499>

<https://www.paris.fr/pages/paris-respire-2122>

<https://www.paris.fr/pages/prevention-et-securite-routiere-2115#aires-pietonnes-zones-de-rencontre-et-zones-30-comment-ca-marche>

<https://www.paris.fr/pages/57-nouvelles-rues-aux-ecoles-dans-paris-8197>

정 연 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66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12월 1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